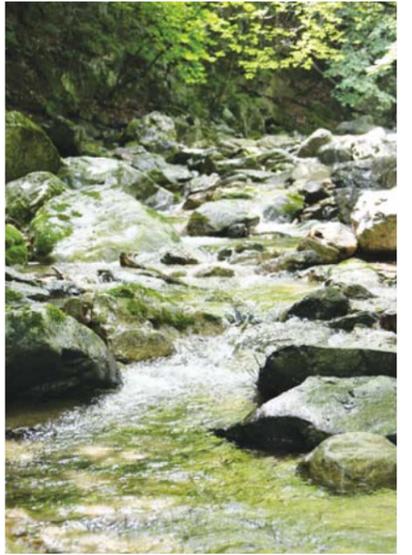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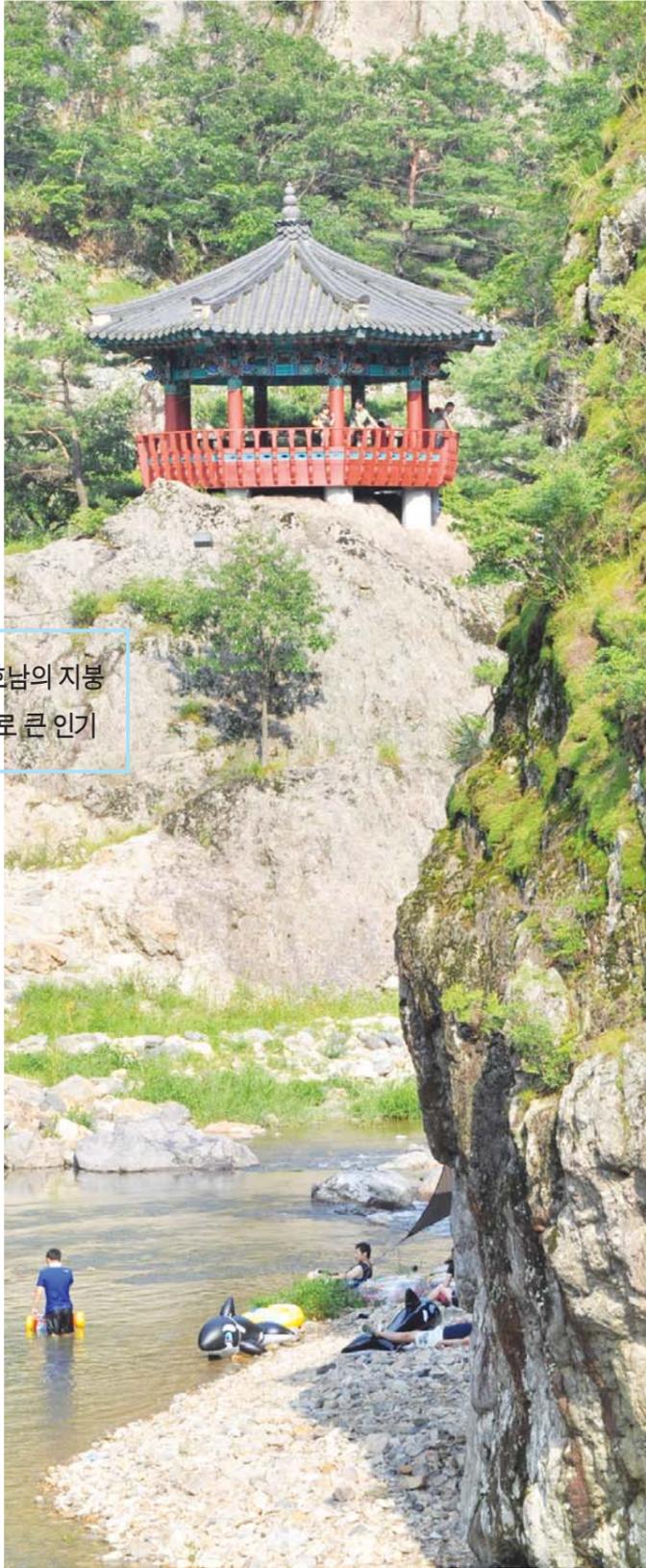


푸른 산... 맑은 물... 무더위 해소 '안성맞춤'

진안은 호남의 3대 정맥인 금남정맥,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 등 3대 정맥이 맞닿은 산태극과 섬진강, 금강의 발원지인 수태극이 펼쳐지는 곳으로 평균 해발 300m의 고원지대로 호남의 지붕, 남한의 개마고원으로 불린다.

전체면적(7만8916ha)의 76%인 5만9771ha가 산림으로 전북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울여름, 진안을 찾으면 미술쟁 그린가이드북이 별 3개 만점 준 마이산은 물론 용담호, 깊고 푸른 계곡, 울창한 휴양림, 신록으로 갈아입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만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꼭 가봐야 할 곳은 바로 계곡. 진안엔 윤일암반일암과 운장산 갈거계곡, 마조학동계곡을 비롯해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많다.

호남 3대 정맥 맞닿은 산태극·수태극이 펼쳐지는 호남의 지붕
시원한 물 흐르는 청정계곡에서 캠핑·물놀이 장소로 큰 인기



자연수목의 멋진 어우러짐 '운장산 갈거계곡·자연휴양림'

운장산자연휴양림은 정천면 갈거계곡에 위치한다. 길이는 7km로 원시수림과 양산유곡의 옥류가 연중 흐른다. 순환도로와 연결하고 '마담바위', '해기소' 등이 자연수목과 조화를 이루어 멋진 풍광을 연출한다.

휴양림은 2000년에 개장했다. 하루 수용인원은 300~600명이다. 숲속의 집, 휴양관 등 24개동 숙박 시설과 캠핑을 할 수 있는 데크 20개를 갖췄다.



학동마을 앞 흐르는 물 '정천면 마조학동계곡'

운장산 줄기인 옥녀봉, 구봉산, 명덕봉 등으로 둘러싸인 학동마을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

하천 옆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에어컨을 틀어 놓은 듯 시원한 자연바람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물이 흰하게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송사리 떼도 보인다.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마을휴양관은 계곡의 시원함과 산으로 둘러싸여 산촌의 푸른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진안=우태만 기자

여름철 피서 1번지 '윤일암반일암'

윤일암반일암은 운장산 동북쪽 명도봉(863m)과 명덕봉(845m) 사이 약 5km를 흐르는 계곡으로 집채만 한 바위와 옥류가 압권이다.

윤일암(雲日岩)은 주변을 오기는 것은 '구름과 해' 뿐이라는 뜻이고, 반일암(半日岩)은 햇빛이 반나절밖에 비치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름만으로도 계곡의 깊이와 시원함을 가늠할 수 있는 이곳은 지난 1990년부터 본격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진안군은 1990년 12월 27일 관광지로 지정된 윤일암반일암 595,463㎡에 172억여 원을

들여 화장실, 주차장, 전망대, 교량, 야영장, 현수교, 담수보, 체육시설 등을 설치했다.

계곡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으며 한여름에도 열대야가 없다.

무료로 운영되는 야영장도 있다. 주변 음식점에서는 송어회를 맛볼 수 있다. 진안고원에서 나는 더덕과 토종닭을 버무려 굽는 닭더덕구이, 오리훈제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바위와 바위 사이를 흐르는 계류는 소(沼)를 이뤄 어른들이 물놀이하기에 적당하고, 또 하류로 조금만 내려가면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